

# 여성의 신체노출의상에 대한 인지적 평가

조 은 영 · 홍 병 숙\*

광양전문대학 의상과 · 중앙대학교 가정대학 의류학과\*

## Cognitive Evaluation on Body Exposure of Female Clothing

Eun-Young Jo · Byung-Sook Hong\*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Kwangyang Junior College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Chungang University\*

(1995. 4. 25 접수)

###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investigate 1) the difference of cognitive evaluation on body exposure of female clothing, and 2) purchase frequency and intention of wearing according to demographic variables.

The instrument of this study consisted of response scale and stimuli. Thirty three items of 7-point Likert scale were developed to measure cognitive evaluation of the people who responded. The stimuli were 7 types of clothing, differing exposure parts and style on line drawing.

The sample included 450 subjects, consisting of 231 in Seoul and 219 in Chun-nam Province. Statistics applied for analysis were frequency, percentage, mean, standard deviation, correlation, t-test, F-test, Duncan's multiple range test, factor analysis.

The Results were:

1. Constructing factors of cognitive evaluation consisted of elegance, sensuality, attraction, individuality.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every factor on each types of clothing.
2. The evaluation toward each types of clothing was influenced by the subjects' sex, age, and residence.
3. Purchase frequency and intention of female subjects' wearing were very low, and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on demographic variables.

### I. 서 론

복식은 문화의 한 요소로서 물질적, 사회적, 정신적

유산이 집약된 총체적 산물이며 사회의 특성을 전체적으로 나타내는 가장 시각적인 표현 중의 하나이다. 문화의 특성 중 가치관의 특성은 생태학적 특성과 사회문화적 특성이 상호작용하여 나타나며<sup>1)</sup> 사회 문화적

특성은 환경적인 여러가지 요인에 영향을 받아 사회 및 세대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변화가 완만한 사회일수록 세대간 문화는 전통적 유형을 띠게 되어 생태학적 특성에 영향을 많이 받지만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는 사회일수록 세대간의 차이는 커지게 되어 전통적인 관계는 깨어지기 쉽다.

60년대 이후 우리사회는 경제성장에 따른 물질적인 풍요로움, 지속적인 기술발전에 따른 생활 패턴의 변화 및 정보산업의 발전 등 경제구조의 변화가 초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의식구조 즉, 가치관에 있어서도 급격한 변화가 유발되었다. 특히 과거 경제발전의 주역을 담당했던 기존세대들이 서서히 신세대와 자리바꿈을 하였고 최근 1년간의 변화는 과거 10년간의 변화와 비견될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기존세대와 신세대의 거리감은 크다고 하겠다.

사회의 전반적인 가치관이나 도덕관념은 그 사회에서 받아들여지는 의복의 형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며 복식은 여러 문화표현 중에서 가장 민감하게 이러한 변화를 반영한다. 특히 패션을 이끌어가고 그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계층이 젊은이들인 현대에서는 그 변화의 폭이 더욱 커 기존세대와의 갈등을 야기할 수도 있다. 70년대 초의 미니스커트에 대한 비난과 법적규제는 지금 전혀 문제시 되지 않고 있는 반면 지난 여름 거리의 패션으로 등장해 젊은 여성들에게 착용된 이른바 '배꼽티'의 경우 기성세대의 비판을 받고 있다.

이렇듯 현대에 이르러 도덕적 가치관의 변화와 성의 개방화 등 급속한 변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의복에 있어서 신체노출에 대한 태도도 과거의 전통적 견지에서 벗어나 다양한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다. 최근의 유행경향은 또한 팔이나 다리의 노출뿐 아니라 어깨와 등, 배꼽을 드러내는 과감한 신체노출과 속이 비치는 에로틱한 의복스타일이 계속해서 유행되고 있다. 이런 유행경향은 세계적인 유행(world fashion) 개념이지만 문화권이나 지역, 사회에 따라서는 수용정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여성옷차림의 신체노출에 대한 인지분석을 통하여 우리사회의 의복에 대한 태도와 가치관의 변화를 밝히는 것은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결과는 현대인의 의복행동에 대한 이해를 돕고 한국의 문화가치에 맞는 디자인 개발의 기초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여성의 일상적

옷차림에 대해 신체노출부위와 의복스타일을 달리하여 응답자의 성별, 연령, 거주지역에 따른 인지적 평가의 차이를 밝히고 구매빈도와 착용의도를 파악하는 것이다.

## II. 이론적 배경

### 1. 문화규범과 의복

Hamilton<sup>2)</sup>은 복식은 거시문화체계 속에서 그 기능이 이루어지며 복식의 문화적 하위체계는 거시문화체계와 같이 상호관련되고 상호작용하는 3가지 기본적이고 뚜렷한 요소 즉, 기술, 사회풍조 그리고 관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지적하였다. 즉 기술은 물질문화로서 모든 사람들이 신체적, 사회적 환경에 적응하도록 하는데 사용되는 물질적인 것이다. 사회구조는 사회적으로 수립된 질서, 규범 또는 인간이 어떻게 역할 분담하고 집단을 조직하는가 하는 행동 등을 가리킨다. 관념은 문화가 지닌 신념과 가치를 말한다. 선과 악, 정의와 불의, 적합성과 부적합성을 규정하는 외현적 또는 내현적인 일련의 인지적 규율이다. 여기에는 사회적으로 수용된 복식에 대한 문제 즉 적합성, 정숙성, 위법 등에 관한 사항 등이 속한다. 문화들간의 다양성은 이상의 기술, 사회구조, 관념의 맥락 속에서 살펴볼 수 있으며 복식문화는 이 3개의 층과 관련하여 평가될 수 있다.

복식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자연환경, 문화적 유산,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서로 결합하여 한 집단에 의해 수용되는 의복형태를 결정한다. 특히 인구통계학적 추세나, 새로운 가치관과 같은 변화들은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변화로 생각될 수 있으며 이들 각 변화들은 새로운 형태의 의복발전에도 커다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sup>3)</sup>.

사회규범은 수용가능한 의복형태를 통제하는데 특정한 사회적 상황에 적합한, 받아들일 수 있는 의복착용방법을 규정하는 기준으로서 존재한다. 사람들의 의복착용방식을 통제하는 규범과 같은 사회적 습관으로는 보다 정확하게 풍속, 관습, 인습, 예의, 유행, 관례, 금기 그리고 법률을 들 수 있다. 비록 이러한 용어들이 종종 혼용될 수 있고 특수한 문화집단의 성격을 규정하는 행동양식의 총체를 일컫는다고 할지라도, 그것들은 각각 조금씩 다른 의미를 가진다.

의복에서의 정숙성은 도덕, 예의 등과 관련된 사회적 규범에 대한 동조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다<sup>45)</sup>. 그것은 신체노출의 강도와 밀접히 관계된다. 의복에서의 예의 또는 정숙의 기준을 위반하는 것은 보통 사회의 복지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러한 규범은 시대와 지역, 사회마다 다르다<sup>6-8)</sup>. 한 집단에서는 예의 바르거나 정숙하다고 받아들여진 복장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집단에서는 종종 성적으로 자극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또한 같은 사회에서도 개인의 성별, 연령, 가치관 등에 따라 다르다. 연구를 보면 남자에 비해 여자가 정숙성을 더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sup>9,10)</sup> 이는 신체노출의 허용정도가 여자에게 더 엄격하기 때문이다. 연령이 높을수록 의복의 정숙성에 대한 관심이 크며 기혼여성이 미혼여성보다 정숙성을 더 중요시하였다<sup>9)</sup>. 가치관에 따른 차이를 보면 종교적 가치관이 높은 사람은 정숙성을 중요시하며 탐미성이나 장식성과는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sup>10,11)</sup>. 또한 여성의 역할에 대해서 보수적 태도를 지닌 사람들이 의복정숙성을 좀 더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up>12)</sup>. 이와 같이 정숙성은 사회적 기준에 따라 달라지는 사회적 태도의 일종이다.

한편 유행 역시 사회의 규범체계의 일부분이다<sup>7)</sup>. 유행은 보다 빨리 지나가고 전통에 그다지 뿌리박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그 변화가 감지된다. Marc-Alain Descamps<sup>13)</sup>은 유행을 성적인 장식과 과시를 문화적인 형식으로 확대한 것이라고 하며 유행에서 에로티시즘과 정숙성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무엇으로든 그것을 분리할 수 없다고 하였다.

Flügel<sup>14)</sup>도 의복에 있어서 정숙성과 성적인 면이 단순히 부정적 관계가 아닌 미묘한 관계임을 시사했는데 인간이 성적 특성을 의식하므로써 정숙성을 필요로 하게 되고 이를 위해 의복이 만들어졌다고 하면, 그 의복이 오히려 부도덕하게 되어 성적 흥미를 조성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역현상의 이론이 생기게 된다. 이처럼 의복의 정숙성과 성적 매력은 미묘한 관계를 지니고 있으며 성적 매력성은 심미성과 공통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다.

모든 사회적 습관은 시간에 따라 변하게 되며 한때 도발적이던 스타일이 대중수용의 단계에 이르게 되면 금기는 무너지고 그 스타일은 더 이상 부도덕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한때 미니스커트에 대해 체포령

까지도 불사하던 우리의 유교사회에서도 이제 다리의 노출에 대한 비난은 거의 없다.

## 2. 신체노출과 의복의 사회적 지각

사람들은 그 외모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알리고 가치를 나타내게 되며 기분을 표현하거나 태도를 나타내게 된다<sup>15)</sup>. 즉 의복이 개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하게 되는 역할 중 가장 중요한 측면은 상징성이며 다른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을 위한 수단을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의복이 개인의 특성과 행동을 지각하는데 중요하고 큰 영향요인이라는 점은 여러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다<sup>16-20)</sup>. 이러한 의복상징에 부여되는 의미는 주로 사회적 지각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Kaiser<sup>21)</sup>는 인간은 일상생활에서 의복과 치장 등을 타인에 대한 추리의 단서로 사용하는데, 피지각자의 외모를 구성하는 단서들을 각기 분리시켜 분석하면 서로 조화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지각자에 대한 전반적, 통합적 인상을 형성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의복과 사회적 지각에 관한 연구들은 다양하게 전개되어 왔는데, Lennon과 Davis<sup>22)</sup>는 이러한 선행 연구들을 연구문제에 따라 지각자 변인, 지각대상 변인, 상황적 변인이 의복착용자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3개 범주로 분류하였다.

지각자 변인에는 지각자의 신체적 특성, 심리적 특성, 인지적 구조 등이 포함된다. 지각자 변인이 사회적 지각에 중요한 영향을 줌에도 불구하고, 의복행동 분야에서의 이에 관한 연구는 적다.

지각대상 변인중 의복유형의 영향에 대해 살펴보면 여러 연구에서<sup>17,19,20,23,24)</sup> 같은 사람이라도 착용한 의복 유형에 따라 착용자의 태도, 가치관 및 성격특성은 다르게 지각되었다.

의복형태의 인지에 있어서는 그 의복의 형태에 따라, 그 상황에 따라, 그 의복을 인지하는 관찰자에 따라 각기 달리 나타나는데<sup>25)</sup> Buckley<sup>26)</sup>는 의복을 인식하는데 있어 개인적인 차가 크고, 성에 따라, 경제수준, 지적수준, 성취욕 등에 따라 다른 점을 보인다고 하였다. 연구결과 같은 의복을 보고 남성이 여성보다 더 여성스럽다고 느끼는 경향을 나타내었다<sup>27-29)</sup>. 반면, Berlyne<sup>30)</sup>은 의복과 같이 복잡한 형태에 대한 반응은 비슷한 연령층에서는 성별의 차이가 없다고 했고 Forsythe<sup>31)</sup>도 의복을 지각하고 그에 대한 가치를 평

가하는 유형은 남녀가 비슷하다고 하여 연구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의복유형에 있어서 신체를 노출한 의복스타일에 대해서는 부정적 편견을 보이는데<sup>32,33)</sup> 목을 깊게 노출하거나 비치는 형태의 수트와 블라우스는 관리직에 부적절한 것으로 지각되었다<sup>34)</sup>. 신체노출 의복스타일에 대해서는 정숙성 인상이나 성에 대한 태도와 관련하여 주로 연구되고 있는데 성적 자극을 주는 의복이 보수적 의복보다 좀더 매력적으로 평가됨과 동시에 성범죄 피해의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지각되었다<sup>35)</sup>. Mathes와 Kempfer<sup>35)</sup>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체노출한 의복 품목과 스타일에 자유로운 성적태도와 행동을 나타낸다고 믿고 있음을 밝혔는데 같은 의복스타일일지라도 남자의 경우는 상관인 없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의 관능적 의복행동은 개방적 성의식과 상관이 있으나 남자의 관능적 의복행위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지각된 Zellman과 Goodchilds<sup>36)</sup>의 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

국내연구에서도 여성의 다리노출은 정숙성인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미니스커트와 목노출은 일부 지각자로부터 성범죄유발 가능성이 있다고 지각되었다<sup>37)</sup>. 그런데 목 또는 다리의 노출과 관련하여 Conner, Peter와 Nagasawa<sup>16)</sup>의 연구에서는 유행하는 스타일로서의 미니스커트는 정숙성 인상보다는 사회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지각되었고 Paek<sup>20)</sup>의 연구에서도 스커트에 긴 트임이 있는 투피스와 가슴을 깊게 관 팬츠수트 착용자는 드레시한 유형이나 캐주얼한 유형의 착용자에 비해 더 성숙하고 자신감 있으며 주도적이고 가장 매력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사람으로 지각되었다. Gibbins과 Coney<sup>38)</sup>의 연구에서도 긴 스커트에 비해 짧은 미니스커트는 짧고 외향적인 것으로 지각되고 목을 깊게 관 티셔츠 형태는 좀더 짧고 외향적이고 사교적이며 성적 매력이 있는 것으로 지각되어 동서양의 의복의 사회문화적 인식의 차이점을 나타내었다.

한국과 미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의복에 있어서 문화차를 비교한 이명희<sup>39)</sup>의 여성옷차림에 대한 연구에서는 미국남성이 다른 집단에 비해 성적인 이미지를 좋아하는 편이었고 문화에 관계없이 남성은 여성적인 의복을 선호하고 성적인 이미지를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Williamson과 Hewitt<sup>40)</sup>의 연구에서도 여성보다 남성이 짧은 바지나 미니스커트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문제

연구문제 1: 인구통계적 변수에 따른 여성의 신체노출의상에 대한 인지적 평가의 차이를 밝힌다.

연구문제 2: 인구통계적 변수에 따른 신체노출의상에 대한 구매빈도와 착용의도의 차이를 밝힌다.

#### 2. 측정도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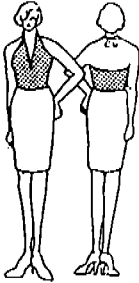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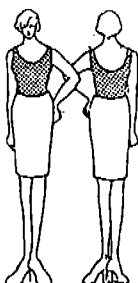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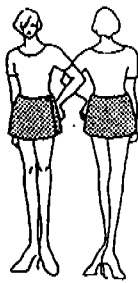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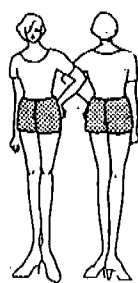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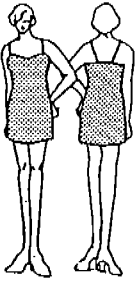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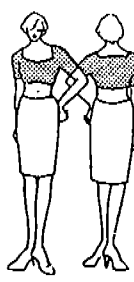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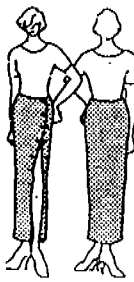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신체노출부위와 의복스타일에 따른 상이한 의복유형의 자극물과 이에 대한 응답자의 인지적 평가를 측정하는 문항과 각각의 의복유형에 대한 구매빈도와 착용의도를 묻는 문항,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관한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의복유형은 노출이 심한 계절인 여름철의복을 대상으로 하였다. 여성잡지<sup>41)</sup>와 브랜드의 커다로그, 패션 관련 신문기사<sup>42-44)</sup>를 참고하여 유행경향을 파악하고 일반인의 착용스타일을 관찰하여 7개 의복유형을 선정, 의류학 전공 교수 2명과 대학원생 3명에 의해 타당도를 검증하여 결정하였다. 자극물은 선그림(Line drawing)에 의해 자세, 얼굴, 머리형태 등을 일정하게 통제하였고 상의 노출인 경우는 무릎길이의 스커트로, 하의노출인 경우는 반소매와 칼라가 없는 T셔츠로 동일하게하여 가의변인의 영향을 가능한 한 제거하였다. 응답자가 정확하게 의복유형을 구분할 수 있도록 회색으로 처리하고 스타일에 관한 간단한 설명을 첨부하였다.

응답자의 인지적 평가를 측정하는 문항은 선행연구<sup>35,45,46)</sup>에서 사용된 평가용어들 중 본 연구의 목적에 적당한 용어를 추출하여 예비조사를 거쳐 최종 33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각각의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으로, '그렇지 않다'를 2점으로, '약간 그렇지 않다'를 3점으로, '보통이다'를 4점으로, '약간 그렇다'를 5점으로, '그렇다'를 6점으로, '매우 그렇다'를 7점으로 하는 7점척도에 의해 측정되었다.

구매빈도는 구매별수를 직접 기술하도록 하였고 착용의도는 7점 척도로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착용의도를 나타낸다.

7개의 의복유형과 명칭은 다음과 같다[그림 1].

홀터	탱크탑	미니스커트	핫팬츠
어깨와 등을 완전히 드러낸 상의	소매가 없고 목선을 깊게 판 상의	아주 짧은 치마	아주 짧은 바지
			
슈미즈 드레스	배꼽티	통스커트	
어깨를 끈으로 연결한 짧은 원피스 드레스	배꼽을 드러낸 짧은 상의	트임을 깊게 주어 다리가 드러나는 긴 스커트	
			

[그림 1]

3. 자료수집 및 분석

예비조사는 1994년 7월에 남녀대학생 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예비조사에서는 척도에 대한 피험자의 이해도와 질문의 명확성, 응답의 용이성, 응답의 분포를 조사하여 7개 의복유형을 결정하고 평가문항을 확정하여 최종설문지를 완성하였다.

본 조사는 1994년 8월에서 9월 중에 실시되었으며 편의표본추출에 의하여 서울지역에서 231명(51.3%), 전남지역에서 219명(48.7%)를 표집하여 모두 450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자료분석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구하였고 t-test와 F-test, Duncan Test,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 표본의 일반적 특성 N=450

변 인	구 분	빈 도 (%)
연 령	만 18세~22세	177 (39.4)
	만 23세~29세	111 (24.7)
	만 30세~39세	70 (15.6)
	만 40세 이상	91 (20.3)
직 업	학 생	235 (52.2)
	직 장인	215 (47.8)
성 별	남	227 (50.4)
	여	223 (49.6)
거주지역	서 울	231 (51.3)
	전 남	219 (48.7)

\* 무응답을 제외하고 처리하였음.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신체노출의복에 대한 인지적 평가의 구성요인

신체노출 옷차림에 대한 인지적 평가의 구성요인을 밝히기 위해 33개 문항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

다. 분석방법으로는 주성분 분석모형 및 varimax회전법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2>와 같고 모두 4개 요인이 도출되었다.

요인1은 전체변량의 36.8%를 설명하며 '결손해 보인다' '정숙해 보인다' '품위와 있어 보인다' 등의 11개 문항을 포함하고 있어 요인명을 '품위'요인으로 명명하

<표 2> 요인 분석 결과

요인명	문항	요인부하량	
품 위	결손해 보인다.	0.8702	고유치 12.1584 전체변량(%) 36.8 누적변량(%) 36.8
	단정해 보인다.	0.8515	
	차분해 보인다.	0.8465	
	성실해 보인다.	0.8430	
	정숙해 보인다.	0.8411	
	점잖아 보인다.	0.8331	
	지적으로 보인다.	0.8023	
	책임감이 있어 보인다.	0.7879	
	인상이 좋아 보인다.	0.7960	
	품위가 있어 보인다.	0.7030	
	평범해 보인다.	0.6458	
선정성	유혹적이다.	0.8958	고유치 8.6301 전체변량(%) 26.2 누적변량(%) 63.0
	신경적이다.	0.8903	
	충동적이다.	0.8650	
	자극적이다.	0.8455	
	섹시하다.	0.8235	
	개방적이다.	0.7699	
	개방적인 성의식을 표현하였다.	0.7266	
	외향적이다.	0.6870	
	적극적으로 보인다.	0.5744	
매 력	마음에 들지 않는다.	-0.8110	고유치 2.1468 전체변량(%) 6.5 누적변량(%) 69.5
	멋있어 보인다.	0.7470	
	보기가 좋다.	0.7327	
	내가 좋아하는 형이다.	0.7167	
	매력적으로 보인다.	0.6929	
	예의가 없어 보인다.	-0.6794	
	세련되어 보인다.	0.6419	
	경박해 보인다.	-0.6319	
	이기적으로 보인다.	-0.5308	
개 성	창조적이다.	0.7920	고유치 1.1850 전체변량(%) 3.9 누적변량(%) 73.1
	상상력이 풍부해 보인다.	0.7293	
	개성있어 보인다.	0.6537	
	남들과 달라 보인다.	0.5610	

었다. 요인2는 전체변량의 26.2%를 설명하며 '유혹적이다' '선정적이다' '섹시하다' '외향적이다' 등의 9개 문항이 함께 묶여 요인명을 '선정성'이라 하였다. 요인3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 '보기가 좋다' 등의 선호평가 요인과 '매력적으로 보인다' '세련되어 보인다' 등의 매력요인이 포함된 전체 9개 문항으로서 전체변량의 6.5%를 설명하며 '매력'요인이라 명명하였다. 요인4는 '개성'요인으로 '창조적이다' '상상력이 풍부해 보인다' '개성 있어 보인다' '남들과 달라 보인다'의 문항이 함께 묶여 전체변량의 3.9%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전체변량의 설명력은 73.1%로 나타났으며 제1요인인 '품위'요인과 제2요인인 '선정성'의 2개 요인의 설명력이 63%로 대부분을 이루고 있어 신체노출한 의복스타일에 대해서는 주로 품위, 정숙성, 성격태도 등과 관련이 됨을 알 수 있다.

2. 인구통계적 변수에 따른 신체노출의복의 인지적 평가

1) 의복유형의 요인별 차이

7개 의복유형에 따라 도출된 4개의 평가요인에서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의복유형별 요인의 평균값을 구하고 F-test를 실시하였다(표 3).

먼저 요인의 평균값을 비교해 본 결과 모든 의복유형에서 품위요인이 가장 낮은 값을 나타내었고 선정성 요인이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매력요인과 개성 요인은 그 중간정도의 수치를 보이면서 의복유형에 따른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즉 모든 의복유형에 대해 응답자들은 별로 품위가 없으며 약간 선정적인 것으로 평가함을 알 수 있다.

각 의복유형의 요인별 F-test결과 4개 요인 모두에서 의복유형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품위요인은 롱스커트가 가장 높았으며 두번째는 미니스커트이며 다음으로 탱크탑, 핫팬츠, 홀터, 슈미즈 드레스, 배꼽티의 순이었다. 이같은 결과에서 신체노출이 많을수록 품위가 없는 것으로 평가됨을 알 수 있고 비슷한 정도의 신체노출이라 할지라도 미니스커트보다 핫팬츠를 더 품위 없는 것으로 평가됨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가장 높은 평균치를 보인 롱스커트의 경우라도 중위점 4를 넘지 못하고 있어 모든 의복유형이 품위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표 3> 각 의복유형의 요인별 차검중 (평균)

의복 \ 요인	품위	선정성	매력	개성
홀터	2.75	5.07	4.02	4.10
탱크탑	2.82	4.45	3.77	3.47
미니스커트	3.16	4.70	4.42	4.08
핫팬츠	2.76	4.77	3.80	4.02
슈미즈드레스	2.71	5.11	3.76	4.23
배꼽티	2.38	5.08	3.49	4.48
롱스커트	3.70	4.58	4.57	4.46
F	141.12***	59.66***	94.44***	63.11***

\*\*\*: p < .001

선정성 요인은 슈미즈 드레스가 가장 높았으며, 배꼽티와 홀터가 비슷한 수치를 나타내었고 핫팬츠, 미니스커트, 롱스커트, 탱크탑의 순이었다. 역시 신체노출이 많을수록 더욱 선정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는데 탱크탑이 다리노출된 롱스커트보다는 덜 선정적인 것으로 평가되어 노출부위에 있어서 목노출변인보다 다리노출변인이 정숙성 인상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고 애란<sup>37)</sup>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매력요인은 홀터와 탱크탑을 제외하면 품위요인의 순서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핫팬츠보다는 미니스커트를 더 매력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었고 홀터, 미니스커트, 롱스커트를 제외한 나머지 의복유형은 모두 매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성요인은 배꼽티가 가장 높으며 다음이 롱스커트, 슈미즈 드레스, 홀터, 미니스커트, 반바지, 탱크탑의 순이었다. 그런데 신체를 많이 노출한 슈미즈 드레스, 배꼽티, 홀터는 품위가 없으면서 선정적인 것으로 평가되었지만 그중 홀터는 매력요인에서 다른 의복유형보다 높은 순위를 나타내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고 하겠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신체노출이 많을수록 더욱 품위가 없고 선정적이며 매력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로 보아 각 요인간의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피어슨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를 보면 모든 요인간에 유의한 상관을 보이고 있는데 품위요인과 선정성요인은 부적상관을 나타내고

<표 4> 요인별 상관관계 (r)

요인	선정성	매력	개성
품위	-.1346**	.6472***	.3323***
선정성		.1504**	.6132***
매력			.4570***

\*\*\* : p < .001, \*\* : p < .01

있어 선정적일수록 품위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나머지 요인간에는 모두 정적상관이 있으며 특히 품위요인과 매력요인, 선정성요인과 개성요인의 상관계수가 .60을 넘는 밀접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즉 품위가 있을수록 매력적으로 지각되며, 선정적일수록 더욱 개성적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표 5> 성별에 의한 요인의 차점중 (평균)

의복	요인	남(n=227)	여(n=223)	t
홀터	품위	2.92	2.59	3.68***
	선정성	5.08	5.05	.30
	매력	4.25	3.79	4.31***
	개성	4.20	3.99	2.01*
탱크탑	품위	2.94	2.69	3.10**
	선정성	4.51	4.39	1.16
	매력	3.95	3.59	3.84***
	개성	3.64	3.30	3.27***
미니스커트	품위	3.10	3.22	-1.47
	선정성	5.02	4.38	6.77***
	매력	4.34	4.51	-1.85
	개성	4.16	4.00	1.56
핫팬츠	품위	2.80	2.71	.96
	선정성	4.90	4.64	2.65**
	매력	3.87	3.73	1.33
	개성	4.07	3.97	1.03
슈미즈드레스	품위	2.94	2.48	4.64***
	선정성	5.10	5.12	-.14
	매력	4.00	3.51	4.34***
	개성	4.26	4.19	.62
배꼽티	품위	2.41	2.36	.62
	선정성	5.14	5.03	1.06
	매력	3.58	3.40	1.61
	개성	4.36	4.60	-1.79
롱스커트	품위	3.91	3.47	4.29***
	선정성	4.61	4.56	.50
	매력	4.67	4.46	2.03*
	개성	4.57	4.35	2.01*
전체	품위	21.01	19.58	3.22***
	선정성	34.37	33.17	2.25*
	매력	28.61	27.01	3.04**
	개성	29.27	28.39	1.57

\*\*\* : p < .001, \*\* : p < .01, \* : p < .05



2) 성별에 의한 차이

각 의복유형의 요인에 대한 남녀차이를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모든 요인에서 남자가 더 높은 평균치를 나타내고 있으며 품위, 선정성, 매력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표 5>.

전반적인 평가경향은 남녀 모두 신체노출한 의복에

대해 별로 품위가 없고 선정적이며 매력없는 것으로 지각하지만 남자가 여자보다는 같은 의복에 대해 좀더 품위있고 매력있는 것으로 평가하는 성향을 보였다. 이는 이성의 외모에 대해 보다 관대하게,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선행연구<sup>47,48)</sup>와 일치하는 결과라고 하겠다.

<표 6> 연령별 요인의 차점중

(평균)

의복	요인	A(18~22세) n=177	B(23~29세) n=111	C(30~39세) n=70	D(40세이상) n=91	F	Duncan Test
폴터	품위	2.81	3.06	2.54	2.43	8.94***	C=D<A<B
	선정성	5.11	4.94	5.22	5.02	1.45	
	매력	4.20	4.35	3.96	3.36	16.46***	D<C<A=B
	개성	3.99	4.24	4.31	3.97	2.31	
탱크탑	품위	2.65	3.04	2.82	2.87	4.73***	A<B
	선정성	4.46	4.49	4.45	4.41	.08	
	매력	3.69	3.93	3.84	3.71	1.46	
	개성	3.26	3.71	3.53	3.47	4.27**	A<B
미니 스커트	품위	3.19	3.23	3.17	3.02	1.06	
	선정성	4.60	4.75	4.84	4.75	1.10	
	매력	4.58	4.54	4.40	4.00	8.07***	D<C<B=A
	개성	3.95	4.23	4.24	4.01	2.19	
핫팬츠	품위	2.73	2.95	2.65	2.67	2.37	
	선정성	4.81	4.80	4.65	4.77	.45	
	매력	3.84	4.03	3.63	3.57	3.59*	D=C<B
	개성	3.96	4.10	4.03	4.04	.38	
슈미즈 드레스	품위	2.70	3.02	2.62	2.45	5.12**	D=C=A<B
	선정성	5.26	5.02	5.13	4.93	2.35	
	매력	3.82	4.14	3.69	3.22	10.72***	D<C=A<B
	개성	4.22	4.48	4.09	3.84	4.57*	D=CB, D<A
배꼽티	품위	2.46	2.59	2.13	2.19	5.43***	D=C<A=B
	선정성	5.07	5.12	5.20	4.98	.56	
	매력	3.87	3.75	3.06	2.80	24.47***	D=C<A=B
	개성	4.70	4.50	4.35	4.11	3.92**	D<A
롱스커트	품위	3.79	3.93	3.50	3.39	5.23**	D=C<B, D<A
	선정성	4.49	4.69	4.70	4.55	1.23	
	매력	4.69	4.85	4.33	4.18	8.60***	D=C<A=B
	개성	4.41	4.72	4.49	4.24	3.04*	D=A<B
전체	품위	20.41	21.82	19.42	19.02	.13***	D<A<B, C<B
	선정성	33.79	33.82	34.18	33.41	.24	
	매력	28.70	29.92	26.93	24.83	16.24***	D<C<A=B
	개성	28.59	28.78	29.04	27.76	2.52	

\*\*\* : p < .001, \*\* : p < .01, \* : p < .05

선정성요인은 전반적으로 남녀차이가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미니스커트와 반바지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여자는 미니스커트보다 반바지를 더 선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남자는 반바지보다 미니스커트를 더 선정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또한 선정성요인과 매력요인의 평균치를 살펴보면

남자가 더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Williamson과 Hewitt<sup>40)</sup>의 연구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약간 덜 정숙한 차림새를 좋아한다는 것과 일치하는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3) 연령에 따른 차이

응답자의 연령에 따른 각 의복유형별 요인의 차이를

<표 7> 거주지역별 요인의 차검증

(평균)

의복	요인	서울(n=231)	전남(n=219)	t
홀터	품위	2.79	2.71	.84
	선정성	5.25	4.87	4.33***
	매력	4.16	3.87	2.69**
	개성	4.24	3.95	2.75**
탱크탑	품위	2.91	2.72	2.36*
	선정성	4.49	4.42	.68
	매력	3.83	3.71	1.23
	개성	3.50	3.44	.62
미니스커트	품위	3.19	3.13	.68
	선정성	4.85	4.54	3.12**
	매력	4.53	4.31	2.39*
	개성	4.11	4.05	.58
핫팬츠	품위	2.74	2.78	-.59
	선정성	4.92	4.62	3.08**
	매력	3.90	3.69	2.04*
	개성	4.13	3.91	2.08*
슈미즈드레스	품위	2.78	2.65	1.29
	선정성	5.23	4.98	2.54*
	매력	3.90	3.60	2.62**
	개성	4.34	4.11	1.86
배꼽티	품위	2.28	2.49	-2.39*
	선정성	5.28	4.87	3.97***
	매력	3.48	3.50	-.20
	개성	4.48	4.48	-.05
롱스커트	품위	3.70	3.69	.16
	선정성	4.78	4.38	4.19***
	매력	4.09	4.43	2.57**
	개성	4.58	4.34	2.18*
전체	품위	20.37	20.21	.38
	선정성	34.82	32.68	4.08***
	매력	28.48	27.13	2.56**
	개성	29.37	28.27	1.97*

\*\*\* : p<.001, \*\* : p<.01, \* : p<.05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전체적으로는 품위요인과 매력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선정성 요인은 모든 의복유형에서 연령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의복유형별로 살펴보면 홀터는 품위와 매력요인에서 B집단(23~29세)이 가장 높은 평균값을 보이면서 A집단(18~22세)과 B집단이 비슷하고 C집단(30~39세)과 D집단(40세 이상)이 비슷한것으로 나타났다. 탱크탑은 품위요인과 개성요인에서 B집단이 가장 높게, A집단이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특히 A집단은 탱크탑을 배꼽티 다음으로 품위 없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어 <표 3>에서와 같이 신체노출이 많은 의복품목일수록 품위 없다고 한 전반적인 평가경향과는 매우 다른 성향을 보이고 있다.

미니스커트는 매력요인에서만 A, B, C, D집단의 순으로 나타나 연령이 높을수록 미니스커트에 대해 덜 매력적으로 평가하였다. 핫팬츠의 경우 B집단만이 다른 집단에 비해 더 매력적으로 평가하고 있었으며 슈미즈 드레스, 배꼽티, 롱스커트의 경우 품위, 매력, 개성요인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전체적으로 연령집단간 비교를 해보면 B집단이 대부분의 요인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D집단이 가장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비교적 연령이 높을수록 신체노출한 의복에 대해서 개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그런데 22세 이하의 응답자인 A집단보다 오히려 23세에서 29세의 연령층인 B집단이 더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은 좀 더 폭넓은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연령층이므로 의복에 대한 관심이 높고 신체노출된 의복에 대해서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탱크탑, 미니스커트, 핫팬츠의 경우보다 배꼽티나 슈미즈드레스인 경우 연령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4) 거주지역에 따른 차이

응답자의 거주지역에 따라 평가에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고 이를 살펴보면 선정성, 매력, 개성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배꼽티의 품위요인에서만 전남지역 응답자의 평가가 더 높았고 전반적으로 서울지역의 응답자가 전남지역의 응답자보다 신체노출된 의복에 대해서 좀 더 선정적이고 매력적이며 개성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의복유형별 구매빈도와 착용의도

1) 의복유형별 구매빈도와 착용의도의 차이

각각의 의복유형에 대한 여성응답자들의 구매빈도와 착용의도를 분석해본 결과 의복유형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8>.

<표 8> 의복유형별 구매빈도와 착용의도 (평균)

의복	구매빈도	착용의도
홀터	.15	3.03
탱크탑	1.04	3.67
미니스커트	.87	4.57
핫팬츠	.74	3.73
슈미즈드레스	.19	3.13
배꼽티	.16	2.80
롱스커트	1.28	4.96
F	74.25***	1878.45***

\*\*\* : p<.001

먼저 구매빈도를 보면 평균 별 수가 최대 1.28별로 평균 2벌을 넘지 않아 여성응답자들이 신체노출된 의복을 구입하여 착용하는 정도가 매우 적음을 알 수 있다. 가장 높은 평균을 보인 것은 롱스커트이며 그 외 탱크탑, 미니스커트와 핫팬츠 등이 약 1벌 정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홀터와 슈미즈 드레스, 배꼽티는 극히 낮은 수치를 보여 거의 구입한 경험 없다고 할 수 있다.

착용의도를 보면 롱스커트와 미니스커트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는 별로 착용하고 싶어하지 않았다. 착용의도 순위와 매력성 평가요인 순위를 비교해 보면 전반적으로 비슷한 성향을 보이고 있으나 매력성 평가순위 3번째였던 홀터가 착용의도에서는 하위를 기록하고 있어 과감한 신체노출스타일을 직접 착용하는 것은 꺼려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 연령별 구매빈도와 착용의도의 차이

응답자의 연령별 구매빈도와 착용의도를 분석한 <표 9>와 <표 10>을 보면 구매빈도에 있어서는 미니스커트, 핫팬츠, 롱스커트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착용의도에서는 탱크탑을 제외한 나머지 의복유형에서 모두 차이가 있었다.

<표 9> 연령별 구매빈도

(평균빈수)

의복	집단	A(18~22세)	B(23~29세)	C(30~39세)	D(40세이상)	F	Duncan Test
		n=109	n=44	n=22	n=47		
홀터		.24	.11	.09	.02	2.14	
탱크탑		1.18	1.16	.64	.79	1.03	
미니스커트		.86	1.66	.64	.28	8.38***	D=C<B, D<A
핫팬츠		.96	1.00	.55	.11	7.20***	D<B=A
슈미즈드레스		.19	.30	.27	.04	1.88	
배꼽티		.19	.32	.05	.00	3.31*	D<B=A
롱스커트		1.84	.89	.77	.60	.53	

\*\*\* : p<.001, \* : p<.05

<표 10> 연령별 착용의도

(평균)

의복	집단	A(18~22세)	B(23~29세)	C(30~39세)	D(40세이상)	F	Duncan Test
		n=109	n=44	n=22	n=47		
홀터		3.24	3.61	2.77	2.15	6.49***	D<A=B
탱크탑		3.71	3.95	3.64	3.38	.89	
미니스커트		5.21	4.89	4.36	2.98	23.24***	D<C<A, D<B
핫팬츠		4.37	4.09	2.91	2.36	17.24***	D<C<B=A
슈미즈드레스		3.44	3.77	2.91	1.96	8.20***	D<A=B
배꼽티		3.22	3.48	2.27	1.49	13.07***	D=C<A=B
롱스커트		5.32	5.16	5.07	4.00	6.19***	D<C, B=A

\*\*\* : p<.001

연령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서 구매빈도나 착용의도 모두 낮게 나타났다. 구매빈도에 있어서는 연령별 평가성향에서와 같이 B집단(23~29세)이 가장 높은 평균치를 보였는데 이는 다른 집단에 비해 신체 노출된 의복을 가장 매력적으로 평가하고 있었고 A집단(18~22세)보다는 구매력이 크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착용의도를 보면 미니스커트와 핫팬츠, 롱스커트의 경우는 A집단의 착용의도가 더 높고 홀터, 슈미즈드레스, 배꼽티와 같이 신체노출이 많은 품목은 B집단이 착용의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롱스커트의 경우는 모든 연령층에서 가장 착용하고 싶어하는 의복품목이었다.

3) 거주지역별 구매빈도와 착용의도의 차이

거주지역에 따라서는 비교적 많은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다(표 11). 이같은 결과는 개방적 생활환경인 대도시거주자가 더 높은 구매빈도와 착용의도를 나타내

<표 11> 지역별 구매빈도 및 착용의도(평균)

(평균)

의복	집단		구매빈도			착용의도		
	서울	전남	t	서울	전남	t	서울	전남
홀터	.11	.20	-1.36	3.31	2.73	2.42*		
탱크탑	1.03	1.05	-.08	4.08	3.24	3.84***		
미니스커트	1.17	.56	3.30***	4.73	4.41	1.32		
핫팬츠	.71	.78	-.44	3.94	3.51	1.67		
슈미즈드레스	.19	.18	.13	3.57	2.67	3.34*		
배꼽티	.19	.13	.91	3.05	2.54	1.98*		
롱스커트	1.82	.71	1.28	4.96	4.96	.00		

\*\*\* : p<.001, \* : p<.05 서울 n=114, 전남 n=110

리라 기대한 바와는 달리 생활권에 따른 차이는 많지 않았다.

구매빈도에 있어서는 미니스커트에서만 서울지역의

응답자가 더 많이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고 착용의도에서는 홀터와 탱크탑, 슈미즈드레스와 배폴티에서 서울 지역 응답자가 더 높은 착용의도를 보이고 있었다. 이는 대도시거주자들이 지방거주자들에 비해 신체노출에 약간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을 알 수 있지만 그 차이는 적다고 하겠다.

## V.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여성옷차림의 신체노출에 대한 인지분석을 통해 의복태도의 변화를 규명하고자 인구통계적 변수에 따른 인지적 평가와 구매빈도 및 착용의도의 차이를 밝히는 것이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의 신체노출의상에 대한 인지적 평가의 구성요인은 품위, 선정성, 매력, 개성의 4개 요인이었으며, 각 의복유형에 따라 모든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신체노출된 의복은 별로 품위가 없고 약간 선정적인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각 요인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어 품위가 있을수록 매력적으로 평가되며 선정적일수록 개성적으로 평가되었다.

둘째, 응답자의 성별, 연령, 거주지역에 따라 각 의복유형별 평가에 차이를 보였다. 남자가 여자보다 같은 의복에 대해 좀 더 품위 있고 매력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연령이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보다 품위요인과 매력요인에서 더 높은 평가를 하였다. 또한 신체노출을 많이 한 의복일수록 요인의 집단간 차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에 따라서는 서울지역의 응답자가 전남지역의 응답자보다 신체노출된 의복에 대해서 보다 선정적이고 매력적이며 개성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셋째, 여성응답자의 노출이 심한 의복을 구입하여 착용하는 정도는 평균 별 수가 약 1벌 정도로 극히 적었으며 롱스커트와 미니스커트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도 착용의도가 매우 낮았다. 연령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서 구매빈도와 착용의도 모두 낮았으며 몇가지 의복유형에서 서울지역 여성이 전남지역 여성보다 높은 구매빈도와 착용의도를 보였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통해서 볼 때 노출이 심한 옷차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부정적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구매빈도와 착용의도의 결과로 보아도 대

중화 정도에 있어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킬 만큼 염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즉 우리사회에서는 예의와 정숙성을 중시하는 가치관이 보편적이며 이러한 가치관과 규범이 의복태도에 있어서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어 전세계적인 유행경향과는 달리 문화권에 따른 환경적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이같은 결과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문화권의 비교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선그림(line drawing)에 의한 자극물이란 점과 상황변인을 포함시키지 못했다는 한계를 갖는다. 특정 의복품목으로 한정하고 여기에 노출정도나 부위를 달리한 실험설계에 의한 연구와는 달리 품목간의 비교연구에 중점을 두어 같은 정도의 신체노출과 부위일지라도 품목에 따른 인지적 평가가 달리 나타나는 점은 의미있는 결과라고 생각되나 다양한 의복품목을 모두 다루지 못한 점과 문헌연구의 깊이가 부족한 점이 연구의 한계이다. 따라서 좀 더 많은 신체노출 의복스타일에 대해 실제인물에 의해 착용된 사진이나 현장비디오를 통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응답자 특성이 인구통계적 변수에 국한되었으므로 신체만족도와 같은 심리적 변인을 포함한 연구나 의복착용상황의 적절성 등의 영향력을 밝히는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윤형숙, 신세대를 대상으로 한 Jean광고의 표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산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 2) Hamilton, J.A., Dress as a Cultural Sub-system : A Unifying Metatheory for Clothing and Textiles. *CTRJ*, 6(1), 1-7, (1987)
- 3) Sproule, G.B., Fashion : Consumer Behavior Toward Dress, Minnesota : Burgess Pub. Co., (1979)
- 4) Anspach, Karlyne, The Why of Fashion, Ames, Iowa : The Iowa State University Press, (1971)
- 5) Creekmore, Anna M., Methods of Measuring Clothing Variables, Michigan Agricultural Experiment Station Project No. 783, Michigan State University, (1966)
- 6) 손희순, 의복의 정숙성에 관한 고찰, 배재대학 논문집, 제 5 집, 383-414, (1984)
- 7) Horn, M.J. & Gurel, L.M., The Second Skin, (3rd

- ed.), Boston : Houghton Mifflin, (1981)
- 8) Hurlock, E.B., *The Psychology of Dress*, New York : Arono Press, (1976)
  - 9) 김순구 · 박정순, 자아존중과 의복행동간의 상관연구 -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4(1), 305-313, (1990)
  - 10) 이명희, 예의, 정숙성과 탐미성을 중심으로 한 대학생의 의복행동과 관련된 심리적 변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2)
  - 11) 정명선, 남녀 대학생의 의복에 대한 정숙성과 의복가치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8(1), 85-94, (1984)
  - 12) 강혜원, 한복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한 사회심리학적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17(3), 1-11, (1979)
  - 13) Marc-Alain Descamps, *유행심리, 이연숙 옮김*, 동국출판사, (1993)
  - 14) Flügel, J.C., *The Psychology of Clothes*, New York : International Univ. Press, (1931)
  - 15) Stone, G.P., *Appearance and the self*, In A Rose (Ed) *Human behavior and social process*, 86-118, Boston : Houghton Mifflin Co., (1962)
  - 16) Conner, B.M. & Peter, K. & Nagasawa, R.H., *Person and Costume : Effects on the Formation of First Impressions*, *HERJ*, 4(1), 32-41, (1975)
  - 17) Douty, H.L., *Influence of clothing an perceptions of person*, *Journal of Home Economics*, 55(3), 197-202, (1963)
  - 18) Forsythe, S.M. & Drake, M.F. & Hogan, J.H., *Influence of Clothing Attributes on the Perception of Personal Characteristics*, in Solomon, M.R. *The Psychology of Fashion*. Mass : Lexington Books, 267-277, (1985)
  - 19) Hamid, P.N., *Style of Dress as Perceptual Cue in Impression Formation*, *Perceptual and Motor Skills*, 26, 904-906, (1968)
  - 20) Paek, S.L., *Effect of Garment Style on the Perception of Personal Traits*, *CTRJ*, 5(1), 10-16, (1985)
  - 21) Kaiser, S.B., *The Social Psychology of Clothing : Symbolic Appearances in Context* (2nd ed.), New York : Macmillan Publishing Co., (1988)
  - 22) Lennon, S.J. & Davis, L.L., *Clothing and Human Behavior from a Social Cognitive Framework Part 1 : Theoretical Perspectives*, *CTRJ*, 7(4) 41-48, (1989)
  - 23) Hamid, P.N., *Changes in Person Perception as a Function of Dress*, *Perceptual and Motor Skills*, 29, 191-194, (1969)
  - 24) Harp, S.S. & Stretch, S.M. & Harp, D.A. *The Influence of Apparel on Responses to Television News Anchorwomen*, in Solomon, M.R., *The Psychology of Fashion*, Mass, Lexington Books, 279-291, (1985)
  - 25) Delong, M.R. & Larntz, K., *Measuring Visual Response to Clothing*, *HERJ*, 8(4), 281-293, (1980)
  - 26) Buckley, H.M., *Toward an Operational Definition of Dress*, *CTRJ*, 3(2), 1-10, (1984-1985)
  - 27) Baumgartner, C.W., *Factors associated with clothing consumption among college freshmen*, *Journal of Home Economics*, May, 55, 218, (1963)
  - 28) Sweat, S.J. & Zentner, M.A., *Attributions toward Female Appearance Styles*, in Solomon, M.R. *The Psychology of Fashion*. Mass ; Lexington Books, 321-335, (1985)
  - 29) 안유인, *현대 여성 일상복의 성적 이미지와 상황적 이미지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 30) Berlyne, D., *Ends and Means of Experimental Aesthetics*, *Canadian Journal of Psychology*, 25, 303-325, (1972)
  - 31) Forsythe, S.M., *Effect of Clothing Masculinity on Perceptions of Managerial Traits : Does Gender of the Perceiver Make a Difference ?* *CTRJ*, 6(2), 10-16, (1988)
  - 32) Edmonds, E.M., & Cahoon, D.D., *Attitudes concerning crimes related to clothing worn by female victims*, *Bulletin of the Psychonomic Society*, 24, 444-446, (1986)
  - 33) Cahoon, D.D. & Edmonds, E.M., *Estimates of Opposite-sex First Impressions Related to Females' Clothing Style*, *Perceptual and Motor Skills*, 65, 406, (1987)
  - 34) Cash, T.F., *The Impact of Grooming Styles on the Evaluation of Women in Management*, in Solomon, M.R. *The Psychology of Fashion*. Mass : Lexington Books, 343-356, (1985)
  - 35) Mathes, E.W. & Kempfer, S.B., *Clothing as a Nonverbal Communicator of Sexual Attitudes and Behavior*, *Perceptual and Motor Skills*, 43, 495-498, (1976)
  - 36) Zellman, G. & Goodchilds, J., *Becoming sexual in adolescence*, in E. R. Allgeier and N.B. McCormick, *Changing boundaries ; Gender roles and sexual behavior*, 49-63, (1983)
  - 37) 고애란, *suit의 신체노출이 정숙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0)
  - 38) Gibbins, K. & Coney, J.R., *Meaning of Physical Dimensions of Women's Clothes*, *Perceptual and*

- Motor Skills*, 53, 720-722, (1981)
- 39) 이명희, 한국과 미국 남녀 대학생의 의복이미지 선호도와 성역할 정체감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7(3), 367-379, (1993)
- 40) Williamson S. & Hewitt, J., Attire, Sexual Allure and Attractiveness, *Perceptual and Motor Skills*, 63, 981-982, (1986)
- 41) 동아일보사, 여성동아, 1994년 5월호, 6월호, 7월호
- 42) 중앙일보사, 중앙일보, 1994년 2월 24일
- 43) 동아일보사, 동아일보, 1994년 4월 16일, 5월 22일, 7월 20일
- 44) 조선일보사, 스포츠조선, 1994년 7월 30일
- 45) 신소진, 신체노출을 달리한 남성 캐주얼 복장에 대한 남·녀대학생의 인상형성,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 46) 이주현, 의복단서가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0)
- 47) Lubner-Rupert, J.A. & Winakor, G., Male and Female Style Preference and Perceived Fashion Risk, *HERJ*, 13, 256-266, (1985).
- 48) Barnes, M. L. & Rosenthal, R., Interpersonal Effects of Experimenter Attractiveness, Attire, and Gende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8, 435-446, (1985)